우리나라 고대사 撰園史話 ㉝

(규원사화)

▣ 一沙 權 正 孝
(한국인재개발원 회장·애국운동연합고문 옮김)

(지난호에 이어)

이처럼 세상의 흘러가는 형세가 마치 저무는 해와 같아서 떨치고 일어서지 못하고 이미 스스로의 힘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자 하고 있으니, 그 형세는 이미 나어린 고아가 아울러 그 본 바탕 마저 잃은 꼴이라 할 것이다. 후세에 만약 강한 이웃이 있어 청나라를 이어서 일어난다면, 곧 반드시 우리의 임금을 협박하고 그 신하를 꼬여 이 땅에 군림하며 이 백성들을 노예로 부릴 것이다. 오늘날 안일함에 빠져서 우두커니 아무일 없이 있는 것이 어찌 뒷날에 주리고 춥다고 울부짖는 원인이 되지 않겠는가? 수백 년이 지나지 않아 반드시 강한 이웃에게 패하고 말 것이라고 내가 일컬은 것이 어찌 지나치게 과격한 말이라고만 하겠는가. 오호라 슬프도다!

昔者, 檀儉之肇基立業也, 以無爲爲道, 以寧靜爲行, 扶善滅惡, 入孝出忠, 此誠(萬歲之聖)[萬世聖之]萬世之聖訓也. 雖然, 後屬疎遠而益相分, 風土互殊而別其業. 且膠守陳法而不知應變, 遠事進攻以求擴拓, 而其功不得永固, 歷檀氏千數百年之隆運而已. 作列國分治之勢, 於是人和已失而地利亦去. 雖三國與渤海者, 得振古威以光我國, 而其後無足可聞者. ! 金庾信與太宗王, 恨麗.濟之交攻, 憤國威之不揚, 乃誘唐兵而滅其同族, 奉封策而辱其祖宗, 實爲萬世之開釁. 夫羽翼折, 則鵬失扶搖之勢, 唇已亡, 則齒不免凍寒矣. 新羅旣引滅國而同族, 棄祖宗之土而不能復. 夫內其親, 外親敵, 而能無孤弱, 則天下之人, 亦可倒行 逆施而無所也, 割股充 而無所也; 造翁豈有, 如斯非理耶!

옛날에 단군 임금이 나라의 기초를 열어 위업을 세우고 무위의 도로서 고요히 행함에, 선을 북돋우고 악을 멸하며, 들어서면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고 나서면 나라에 충성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진실로 만세에 걸친 성인의 교훈이다.

비록 그러하나 후손들이 점차 소원해

지고 게다가 서로 나누어지게 되니, 풍토가 서로 틀림에 생업을 서로 달리하게 되었다. 또한 진부한 법에 얽매여 변화에 순응할 줄 모르니, 멀리 원정을 나아가 공략하여 오랑캐를 내쫓고 땅을 넓히고도 그 공덕을 영원히 굳히지 못하고 단조(檀朝) 1천 수백 년의 융성함에 지날 뿐이었다. 열국 분할통치의 형세를 이루고 나자 인화(人和)는 이미 잃어버렸으며, 지리적 이득 역시 없어지고 말았다.

비록 삼국이 발해와 더불어 옛 위세를 얻어 떨치고 우리나라를 빛내었으나, 그 후에는 그다지 귀 기울일 만한 것이 없었다. 항차 김유신과 태종왕이 고구려와 백제가 번갈아 침공해 옴을 한탄하고 나라의 위세가 드날리지 못함을 분하게 여기다가, 이에 당나라 병사를 끌어들여 동족을 멸망시키고 당의 봉책을 받들어 조종(祖宗)을 욕되게 하였으니, 실로 만세에 걸친 추악함의 시작이라 할 것이다.

무릇 날개 깃이 꺾이면 곧 붕새는 힘차게 나는 기세를 잃어버리게 되고, 입술이 없으면 곧 이빨이 시려움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신라는 이미 적국을 끌어들여 동족을 죽였으며, 조종(祖宗)의 땅을 버리고는 다시 회복하지 못하였다. 대저 안으로 친척을 원수로 여기고, 밖으로 원수나 적들과 친하게 지내고도 능히 외롭고 약해지지 않는다면, 곧 천하의 사람들 역시 거꾸로 행하고 거슬러 시행하여도 어리석지 않다 할 것이며, 다리를 베어 배를 채우고도 굶주리지 않았다 할 것이다. 조물주에게 어찌 이와 같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있는가!

宇宙之內 蒼茫之外, 果有一大精靈, 貫流周匝而推運之者耶? 造翁之生人也, 欲其養善滅惡, 以率萬物者耶? 質之外, 果有精靈, 能扶善滅惡, 通性完功, 則身固有死, 而靈可以朝天入神鄕耶? 人之於生也, 只可安分樂道, 忍辛耐苦, 而無怨則足耶? 存性養志, 行善而不怠, 使得俯仰無愧, 則雖死而無餘亦足耶? 噫! (此數者者)[此數者者]此數事者, 豈可(易以)[以易]爲言哉! 余誇爲東夷之人, 可對天下而無愧乎! 余歎上古之武勇, 而今世之人, 皆可不勞戈戟, 東斥西攘, 使國復置於富强之域耶? 噫! 此數事者, 今雖弊其舌而說之, 乃算死兒之齒而已也, 亦復何大益之有. 夫! 幸不偏, 技無專, 民物不可無危難, 而家國之興亡, 翻覆無常. 今朝鮮之不幸, 是亦將幸之端歟! 余觀, 夫! 人心之分裂, 民氣之銷沈, 而不能不投筆長歎也. 嗟桓因乎! 嗟桓因乎! 今片區震域, 一脈遺民, 其將奚爲! 其將奚爲!

우주의 안으로 아득히 넓은 그 언저리에 과연 한 큰 정령(精靈)이 있어 일체를 꿰뚫어 흐르고 두루 감싸안으며 이 세상을 밀어 운행하게 하고 있는가? 조물주가 사람을 낳게 한 것은 선을 기르고 악을 멸하여 이로서 만물을 통솔하게 하고자 했던 것인가? 신체의 바탕 외에 과연 정령이 있어 능히 선을 북돋우고 악을 멸하며, 본바탕에 통하여 맡은 일을 온전히 함으로서 곧 신체는 물론 죽음이 있더라도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서 신의 고향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단지 본분을 지키고 도리를 즐기며 괴로움을 참고 견디어 원망함이 없으면 곧 족한 것인가?

본바탕을 지니고 뜻을 기르며 선을 행함에 태만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르고 땅을 굽어보아 부끄러움이 없으면 비록 죽어서 남는 것이 없다 할 지라도 역시 만족한 것인가? 오호라! 이 몇 가지 일들 또한 어찌 쉽게 말처럼 되겠는가! 내가 동이의 사람됨을 자랑으로 여기기에 천하를 대함에도 무슨 부끄러움이 있겠는가! 내가 상고 시대의 용맹스러운 무예에 탄복하고 있지만, 지금 세대의 사람들은 어이하여 모두가 군사의 일에 힘을 써서 동쪽과 서쪽으로 적들을 몰아내고 이 나라를 다시 부강의 강역으로 올려놓으려 하지 않는가? 오호라! 이 몇 가지 일들 또한 지금 비록 혀가 닳도록 말하지만 그저 죽은 아이 나이 헤아리기일 따름이니 다시 무슨 큰 이득이 있겠는가! (다음호에 계속)

■ 역사기행

도봉산 자운봉 기슭에 도봉서원을 찾아서

▣ 향촌 권 오 창 (본원 자문위원)

도봉서원을 찾아가는 길은 서울 지하철 청량리-의정부간을 운행하는 도봉산역에서 하차하여 도봉산 등산로 입구를 따라 자운봉 쪽으로 경사도 15% 아스팔트길로 약 3km 걸어서 올라가야 한다. 이 길을 따라가면 국립공원 도봉산분소 가기 전에 왼쪽길 옆에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에 도봉동문(道峯洞門)이라는 큰 글씨로 음각된 한문글씨를 볼 수 있다. 이 글씨는 풍화작용이 많이 되었는데 우암 송시열(1607년~1689년)선생이 후학을 위하여 써 주신 것을 이 바위에 새겨 놓았다고 한다.

이곳을 지나면 이제부터 길은 조금씩 가파른 길이 된다. 계류가 흐르는 길을 따라가면 오른쪽 녹야선원이 있는 오른쪽을 바라보게 되는데 녹야선원 왼쪽 갈림길로 산록을 따라 올라가야만 한다. 이 길은 절에서 운행하는 차와 공기관에서 운행하는 차는 통행이 되는데 일반차량은 제한된다.

길 왼쪽은 큰 바위들이 물 흐르는 계곡 옆에 우뚝 우뚝 솟아있고 마루같은 반석도 있으나 자연환경을 해친다고 하여 그곳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유휘를 할 수 없도록 금하고 있다. 길 오른쪽은 산비탈이다. 화강암 바위들이 노송과 잡목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있다. 이런 바위는 1억 5천만년 전 중생대 쥐라기 백악기 초에 형성되었다고 한다.

잡목들은 산수유나무, 산배나무, 산벚꽃나무, 산복숭아나무, 오리나무, 졸참나무, 참나무, 미루나무, 버드나무, 국수나무, 산초나무, 쪽동백나무, 철쭉과 진달래, 개나리, 아카시아나무 등 칡덩굴이 얼기설기 엉켜서 일반 산행로 이외에는 출입을 잘 할 수 없다. 물이 흐르는 갯바닥 돌과 바위에는 물이끼와 바위옷인 검은 버섯이 붙어 있는데 채취는 금지된다. 나무 위에는 뭇 산새들과 매, 비둘기 까치, 까마귀 등이 날고 청솔모 다람쥐 등이 바위를 탄다. 야간에는 들개, 산토끼, 야생고양이 및 돼지 등도 나온다고 하니 숲을 가꾼 효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 오른쪽 산비탈 바위틈으로 쌍줄기 샘 약수터가 있는데 이 물은 청정 자연 샘물로서 오랜 세월동안 아무리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은 샘물이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과 등산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감로 약수이다.

이 샘물에서 오른쪽으로 100m 전방 산기슭을 바라보면 도봉서원이 한눈에 들어온다. 도봉서원은 1573년(선조 6년)에 세운 서원이다. 이 서원은 정암 조광조(1482년~1519년)선생과 우암 송시열선생을 배향한 곳이다.

정암은 점필재 김종직의 학통을 이어받은 사림파의 영수였다. 그는 왕도정치(王道政治)의 실현과 지치주의(至治主義)를 역설하였다. 또한 그의 치적은 전국에 향약을 실시하여 민생을 자조적으로 보살피는 길을 열었고 소학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민심계도의 지침으로 삼았다. 그리고 소격서를 폐지하여 미신타파와 과거제도에 현량과를 신설하여 인재를 광범위하게 등용하고 모든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에 실용될 수 있는 정치를 건의하여 왕의 신임을 얻었다.

그러나 폐위된 신(愼)씨를 복위되도록 상소한 대사간 이행(李荇)을 파직토록 하였고 정국공신 4분의 3을 삭제하여 훈구파와 대립해서 갈등을 가져왔고 신진 사류는 요직에 안배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훈구파는 외직에 축출하여 비난을 받았다. 그리하여 더욱이 왕은 그의 계속되는 도학적인 언행에 염증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급진적인 개혁정치가 먹혀들어가지 않았음으로 훈구파의 끈질긴 공격에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끝내 사사(賜死)되고 만다.

그는 선조 때에 영의정에 추증되고 왕도정치의 추앙받는 인물로 부각되었다.

우암은 숙종 때에 유학자이고 노론의 영수였다. 그는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제자로서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여서 관계에 나와 봉림대군의 사부였으며 병자호란 때에는 왕을 남한산성에 호종하였고 전쟁이 끝난 후 낙향하였다. 1671년에는 우의정에 기용되었고 그 이듬해는 좌의정이 되었다. 1689년 왕세자 책봉에 반대의견을 내었다가 제주에 귀양가서 국문을 받기 위하여 한양으로 오던 중 정읍(井邑)에서 사사되었다. 83세 때였다.

여기서 우암선생의 외손자였던 유회당(有懷堂) 권이진(權以鎭 1668년 현종 9년~1734년 영조 10년)공의 이야기를 알아보자. 유회당 공이 1677년 10세 때에 우암선생이 가을비(秋雨)라는 절구 시를 지으라고 하였는데 이는 주자(朱子)의 시와 똑같다고 말하였고 '우리 동방의 문장이 단언코 이 손자에게 있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공이 1689년 22세 때 2월에 우암선생이 제주에 안치(安置)명이 있어서 내려가던 중 강진 만덕사에서 5일 동안 머무르다 돌아왔다. 그해 10월에는 우암선생이 체포되어 의금부로 올라오던 중 정읍에서 외조손 간의 눈물의 상봉이 있었다. 그러나 우암선생의 사사명령에 따라 그는 그곳에서 수상(隨喪)하고 돌아왔다.

유회당 공은 1694년(숙종 20년)에 급제하여 동래부사를 역임하였고 1723년(경종 3년)에는 사은부사로 청(淸)에 다녀왔으며 1728년에는 호조판서 평안도 관찰사를 지낸바 있다.

다시 우암선생 이야기로 돌아오자. 우암은 주자학을 일생동안 연구한 거유(巨儒)로서 율곡 이이(李珥)의 학통을 이어받고 기호학파의 주류를 이루었다.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에 있어서 퇴계 이황(李滉)의 이원론적인 이기호발설을 반대하고 율곡 이이의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지지하여 사단칠정이 모두 이(理)라 하여 일원론적 사상을 발전시켰다. 우암은 예론(禮論)에도 밝았으며 많은 유학자를 배출하였다. 그는 서인(西人)이 집권하자 신원되었다.

정암선생, 우암선생을 배향한 도봉서원은 건물규모가 200평 남짓하고 주위 뒤쪽은 산림이 울창하여 숲을 이루었고 앞의 경관은 큰 길과 계곡의 암반수가 사시사철 흐르고 건너편 먼 곳의 눈길이 닿는 데는 수락산 전경이 들어온다. 오랫동안 이곳 서원은 서원의 자리를 유지 못하였던 곳인데 그곳 이웃에서 출생하고 성장하여 서원에 출입하였던 성균관 박사 노은 남궁복 공이 사재를 들여서 보수하여 명맥을 이어오던 것을 이제 구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서울시에서 복원공사를 2015년까지 마치도록 계획실시 중에 있다.

도봉서원 앞마당에는 수령 약 300년이 되는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수고 20m 둘레 6m에 달한다. 아 나무만이 지난날 도봉서원의 역사를 지키며 자랄 것이다. 사찰이 많은 도봉산에 유일하게 서 있는 도봉서원은 정암선생, 우암선생의 빛나는 유학사상의 전수도장이 되지 않을까를 생각하여 본다. (끝)

임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8월 21일 현재)

▣ 총재단회비
△권혁춘(부총재) 100만원

▣ 종무위원회비
△권기갑(이천, 복야공파) 20만원
△권의철(서울, 추밀공파) 20만원
△권오익(인천, 대종원) 20만원
△권성일(대구, 검교공파) 20만원

소 계 80만원

▣ 대의원회비
△권영주(금천, 추밀공파) 10만원

합 계 190만원

쫓겨난 황제의 짓거리

▣ 권 중 달 (중앙대 명예 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위진 시대의 남조 제(齊)나라에서는 황제에 올랐던 사람이 둘이나 쫓겨나고 그 왕조도 소도성이 송(宋)을 대신하여 제(齊)를 세운지 겨우 23년 만에 양(梁)나라에 황제권을 넘겨주어야 했다. 그런데 제나라에서 첫 번째로 황제에 올랐다가 쫓겨난 사람은 울림왕(鬱林王) 소소업(蕭昭業)었고, 제의 두 번째 황제 무제의 손자였다.

소소업은 자기 아버지가 태자 시절에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자기가 황제가 빨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무당을 시켜서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빌기까지 했던 위인이다. 그것이 효험을 보았는지 자기 아버지는 일찍 죽고, 황태손이 되었다가 황제가 된 사람이다.

이왕 그렇게 황제가 되고 싶어 했다면 황제가 된 다음에 정치를 좀 잘 할 것이지 황제가 된 다음에 하는 일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짓으로 밤낮을 지새웠다. 그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소소업은 의례에 따라서 자기 아버지의 산릉(山陵) 작업을 마치고 오는 길에 우선 미복(微服)으로 갈아입고 놀이를 시작하였다.

미복이란 일반 백성들이 입는 옷으로 보통의 경우에 황제가 민간 시찰을 할 때에 입는다. 그런데, 소소업은 놀이를 하기 위하여 이를 입은 것이다. 물론 놀이를 하기 위하여서는 자기를 따르던 신하들도 관복을 입으면 안 되었기에 모두 미복으로 갈아 입혔다. 이제 놀이를 하기 위하여 상하가 구별이 없게 된 것이다.

그가 한 놀이는 척도(擲塗)라는 것이었는데, 이는 서로 진흙덩어리를 던지고 노는 오락하는 놀이이다. 황제와 신하가 진흙을 뭉쳐서 서로 던져 맞추기를 하면서 맞으면 좋다고 웃었을 터이니 황제의 놀이 치고는 천박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또 도도(睹跳)라는 놀이를 하였는데, 이는 높이뛰기 놀이인 것이다.

그뿐 만아 아니었다. 황실의 의상을 관리하는 부서인 주의(主衣)의 창고에 하(何)황후를 비롯하여 자기가 총애하는 비빈(妃嬪)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여러 보물(寶物) 그릇을 서로 던져 부수게 하고서 웃고 즐겼다. 한 왕조가 지킬 보물을 놀이로 깨버렸으니, 그에게 가치 있는 것이란 놀이 밖에 없는 셈이었다.

더 가관인 것은 그는 그의 할아버지인 세조가 아끼던 여자인 곽씨(霍氏)를 증(蒸)하기 까지 하였다. 증이란 항렬이 낮은 남자가 항렬이 높은 여자를 간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소소업이 증한 곽씨는 황제인 소소업의 서조모인 것이다. 그리고 그 성을 고쳐서 서(徐)라고 불렀다. 이를 패륜(悖倫)이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러하더라도 정치는 해야 되는데 백성을 잘 다스릴 생각이란 아예 없는지라 그가 아끼는 신하들에게 맡겨 버렸다. 그 가운데 중서사인(中書舍人)인 기무진지(綦毋珍之)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 주었다. 그래서 매관매직에 여념이 없었다. 또 서룡구를 후합사인(後閤舍人)으로 삼아서 함장전(含章殿)에 항상 거주하도록 하자, 그는 황륜모(黃綸帽)를 쓰고 초구(貂裘)를 입고 남쪽을 향하여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서 황제를 대신하여 칙령에 서명하니, 좌우에서 사람들이 시립(侍立)하고 있어서 황제와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상태가 되고도 쫓겨나지 않는다면 이상할 일일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공직자들이 이 역사를 좀 읽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스스로 나야 울림왕정도일 리가 있겠느냐고 말할 터이지만 요즈음 밝혀지는 공직자들의 비리를 보면 이들이 울림왕과 얼마나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나의 지나친 생각일까? 대소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울림왕 정도의 권력만 있다면 그보다 더할 사람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음호에 계속)

칼 럼

소나무 考

▣ 毛村 權 五 福 (본원 편집위원)

소나무는 봄·여름·가을·겨울.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지키면서 우리 민족의 생활 속에 친숙해진 나무이다.

소나무와 인간은 이처럼 서로 얽혀가면서 살아왔고 소나무는 우리 민족의 문화에 거름이 되어 준 것이다.

인간이 있는 곳에는 소나무가 있었고 소나무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 관계는 편리공생(片利共生)이 아니라 상리공생(相利共生)의 그것이었다. 이러한 상호진화(相互進化)란 말을 붙여서 타당한 것 같다. 더불어 한국민의 민족수(民族樹)는 소나무이다. 소나무를 일러 언필칭 백목지장(百木之長). 만수지왕(萬樹之王)이요 노군자(老君子)라고도 부르기도 했다. 소나무는 나무라는 개념을 넘어선 인격적 존재, 신적(神的) 존재로 다가온다. 그것은 금송(金松)의 경우처럼 신이담(神異譚)까지 낳고 있다.

산맥이기 풍속대로 한민족은 저마다 소나무 신체(神體)를 한 그루씩 지니고 살아왔다. 다만 오랜 세월 속에 변절되고 억압당해 우리 것을 잠시 잊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깊은 마음의 안벽에는 늘 부인할 길 없는 것이다. 그같은 자리매김과 인상 찧기는 성장하기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 예가 솔바람 태교(胎敎)이다. 아이를 가진 임산부가 소나무 아래에 정좌하여 솔잎을 가르는 장엄한 바람소리를 온몸으로 맞아 밉고 고운 정이며 시기와 증오, 원한 등 갖가지 앙금을 가라 안치고 솔바람 소리를 태아에게 들려준다고 한다. 이같은 태교는 장래 아기의 성장에 크게 유익하며 그같은 철학적인 양질의 지혜는 놀랍다 아니 할 수 없다.

우리의 생활을 정신적인 면과 물질적인 쪽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때 소나무처럼 우리에게 꿋꿋한 기개를 일깨워 준 나무도 없는 것이다. 송죽같은 굳은 절개로 대표되는 소나무의 덕성은 오랫동안 우리 정신생활의 지주를 이루어 왔다. 송백이 추위에도 이울지 않는다는 것은 논어에 이미 공자의 말씀으로 올라 있고 중국의 가장 오랜 역사서인 사기에도 '송백은 온갖 나무의 어른이 되어 궁궐을 지킨다' 고 하였다. 이리하여 나는 '한반도에 있어서 앞으로 200년 동안은 소나무가 중요 조림수종으로서의 자리를 잃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소나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깊이 연구해 보고자 하며 그에 대한 책자와 문헌,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앞으로 '소나무연구소' 를 설립하여 한그루 큰 소나무처럼 살겠다고 마음먹으면서 우람한 소나무처럼 꿋꿋한 기상과 곧은 절개로 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한다.

나는 어릴 적부터 늘 소나무처럼 청정한 향기를 몸에 지니고자 했고 소나무의 마음으로 도(道)를 닦고 병자를 치료하고자 했다. 더불어 나는 포플러는 시인(詩人)이고 소나무는 철학자(哲學者)라. 등전산 송 청풍(登前山 松 靑風: 앞산에 오르니 솔이 푸르고 푸르더라)라는 시를 지어 읽으면서 앞으로 무척 깊은 산골마을에 각양각색의 자태와 모양을 가진 소나무들로만 가득찬 '소나무 정원' 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 정원은 춤추는 나무, 기뻐하는 나무, 사랑의 나무, 간절한 기다림의 나무, 행복의 나무, 절규하는 듯한 아픔의 나무, 비상의 나무, 기개와 절개를 가진 선비의 나무- 마치 무희가 삶의 온갖 희로애락을 몸으로 표현하며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켜 내듯 가지각색의 모양으로 뻗은 소나무 가지를 감상하며 인간 삶의 다양한 모습을 오래도록 느껴보고 싶다.

別世

德庵 權五熙 고문 別世

덕성택시(주)회장이시며 본원 고문인 德庵 權五熙 옹께서 지난 15일 별세했다. 향년 95세.

권옹께서는 안동 권씨 중앙화수회 창립때부터 문사에 참여해 부회장을 30여년간 재임하면서 오문 문사발전에 지대하게 공헌했으며, 신진운수, 동광운수, 덕성택시 등을 운영하면서 이나라 육운계 발전에 기여했으며 또한 모범운수업체지정,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고문 등을 지내면서 안동(고향)을 사랑하면서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다정다감으로 일관했다.

지난 18일 4일장으로 많은 조문객이 참례한 가운데 안동시 도계 선영에 안장했으며 유족으로 4남2녀와 내외손 34명이 있다.